

전남광주 시민들, 우즈벡 사마르칸트서 민간 공공외교 펼쳐

광주글로벌원정대, 16~22일 우호도시 사마르칸트 방문
통합 따라 전남까지 참여범위 확대...포용·통합 가치 확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이 우호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시민 주도형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국제교류센터와 함께 '제3기 광주글로벌원정대'를 우호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파견, 지난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고려인동포 교류, 교육기관 방문, 교육·문화 봉사 등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글로벌원정대는 시민들이 직접 해외를 방문해 한국 문화와 전남광주의 매력을 알리고, 현지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을 증진하는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통합에 따라 광주뿐 아니라 전남지역까지 참가자 범위를 넓혀 의미를

더했다. 이번 제3기에는 통합특별시민 25명이 참가했다.

원정대는 지난 17일 사마르칸트 고려인문화협회를 방문해 현지 고려인동포들과 문화예술 교류를 진행했다. 또 전통 국악기 기증식을 통해 민족적 유대감과 문화적 공감대를 나누고, 고려인 동포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며 지속적인 민간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19일과 20일에는 사마르칸트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와 사마르칸트 제9학교 등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소통하며 양국 청년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들이 우호도시인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시민 주도형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사마르칸트 보육원을 찾아 현지 아동들을 위한 교육·문화 봉사 활동도 진행한 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동들과 교감하며, 언어와 국경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원정대는 단순한 해외 문화교류를 넘어 광주와 전남 시민이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며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공공외교 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특

별한 의미가 있다.

장안숙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번 글로벌원정대는 전남광주 시민이 세계와 소통하고,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국제교류 현장에서 실천하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공공외교 활동을 확대해 시민이 주도하는 교류를 통해 전남광주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제18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

구례군, 전문 농업인 새 출발 응원

소득작목반 교육생 34명 졸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은 최근 제18기 농업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을 격려하며 전문 농업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농업인대학은 '소득작목반' 과정으로 운영됐다. 지난 3월 5일 개강해 총 22회에 걸쳐 시설예호박, 블루베리 등 14개 작목의 재배기술을 비롯해 토양경정, 농업 분야 인공지능(AI) 활용법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작목별 재배 특성과 관리 방법을 익히고, 토양경정 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토양관리와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생들이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식에서는 총 34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장을 받았다.

또한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치활동과 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제임제가 농촌진흥청장상을, 문이만·윤재철·김진선씨가 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구례군 농업인대학은 2009년 개설 이후 올해까지 22개 과정을 운영하고 8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맞춤형 교육과 이론 및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힘써오고 있다.

장길선 군수는 "바쁜 영농철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필요한 실용적인 교육과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인의 역량을 높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942@

현대제철 순천공장, 순천시에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전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교통안전 향상 등 기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함께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기금 전달식에는 손훈모 순천시장, 박송희 순천경찰서장, 한규현 현대제철 상무, 허규만 순천종합사회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사업의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H형 빛나는 도로'는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 대기선에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H형 빛나는 도로' 사업에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누적 1억4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기금은 현대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는 최근 현대제철 순천공장과 함께 지역사회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H형 빛나는 도로' 기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철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한규현 현대제철 상무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모인 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뜻깊

다"며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훈모 순천시장은 "지역사회의 교통

안전에 깊은 관심을 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현대제철 순천공장 임직원분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 내 성숙한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구례우체국, 3년 연속 지역 사랑 실천

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기탁

구례우체국이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우체국 직원들이 최근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구례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박인

자 총괄국장과 박미에 영업과장 등이 참석해 기부금을 장길선 구례군수에게 전달했다.

구례우체국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뿐만 아니라 관내 초등학교 장학금 지원, 우체국 유통망을 활용한 구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지원, 홀몸 어르신 등의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등기 서비스' 등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박인자 총괄국장은 "지역의 상생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한뜻으로 기부에 참여했다"며 "이번 기탁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길선 군수는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구례우체국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기부금이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민구 기자 ming942@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자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임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

영어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품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9월 10일)

쥐 48년생 돈 나가고 안심 쓰면 몇 해 돌아올 것
60년생 당장 이익보다 미래를 보는 안목 필요
72년생 아랫사람 감싸는 포용력을 발휘할 때
84년생 구설이 있을 수 있으니 말조심 하라
96년생 선배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
토끼 51년생 투자 계획은 실패로 이어지기 쉬운 날
63년생 금전 융통이 손조로 남부럽지 않다
75년생 지인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자
87년생 문서 관련 능력을 발휘해 인정받는다
99년생 내 주장보다 부모님 조언을 받을 것
말 54년생 가까운 사람과 말 때문에 불화 생길다
66년생 좋은 일에도 장에 가 따르니 주의하라
78년생 가족 일로 방황하지 말고 안정을 찾자
90년생 이성과 사랑이 썩든 날
돼지 57년생 돈소문을 믿지 말고 주관을 지켜라
69년생 지인과 금전 관계로 다툼 감정 생길다
81년생 지갑이 두둑하니 마음 역시 부자다
93년생 이성 때문에 인퇴약년에 처할 것

소 49년생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라
61년생 지인과 도모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문서가 들어와 운세가 호전될 것이다
85년생 직장에서 좋지 않은 문서를 받는다
97년생 감성적인 하루 보내니 컨디션 조절필요
물고기 52년생 자녀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
64년생 부하 직원에게 반응하면 승사 따른다
76년생 제3자의 이야기로 부부간 불화 생길다
88년생 계획이 무난하게 성공할 가능성 높다
양 55년생 지인 덕에 주변 여건이 좋아질 수 있다
67년생 배우자에게 진솔하게 털어놓아
79년생 금전 융통이 잘된다고 안심하면 큰일
91년생 친구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개 58년생 달갑지 않은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70년생 배우자에게 진솔하게 털어놓아
82년생 지인 덕에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94년생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 좋아질 것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50년생 자녀로 인한 경사가 생길 것
62년생 투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
74년생 큰 공을 세워 재물운까지 좋아진다
86년생 기쁨 속에 걱정거리도 생길 수 있다
98년생 선배의 도움을 받아 일이 술술 풀린다
뱀 53년생 지인과 드라이브하다가 망신 당한다
65년생 막혔던 직장 일이 시원하게 풀린다
77년생 사업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운 따른다
89년생 지인 덕에 기쁨과 만족이 있는 날
원숭이 56년생 기쁨에 물을 탄 것처럼 화합 못하는 날
68년생 원래 가졌던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라
80년생 잘해 주지만 지출이 미울 산다
92년생 사치를 피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라
돼지 59년생 미처 알지 못한 곳에 이익이 숨어 있다
71년생 부동산 때문에 지출이 생길 것
83년생 문서로 인해 인정받는다
95년생 친구나 친지에게 조언을 해주자